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58-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13. 6. 5. (수) 15:00~17: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2013. 6. 5. (수) 15:00~17: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사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 시 간 | 내용 및 발표·토론자 |
|-------------|--|
| 15:00~15:10 | 개회 및 인사말 |
| 15:10~16:10 | 발 제 (각 20분) 1.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발표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2.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조사 방법론 및 한계 정규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3. 여성가출청소년 정책의 한계: 심터에 대해 이정아 (선한목자교회 풀푸레나무 청소년 공동체 대표) |
| 16:10~17:00 | 지정토론 (각 15분) 1. 이은심 (중앙대 인권센터 전문연구원) 2. 이현주 (이화여대 영문학부) 3.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17:00~17:20 | 종합토론 |
| 17:30 | 폐 회 |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목 차

- ◆ 발제 1
 -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발표 1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 발제 2
 -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조사 방법론 및 한계 33
정규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 ◆ 발제 3
 - 여성가출청소년 정책의 한계: 쉼터에 대해 43
이정아 (선한목자교회 풀푸레나무 청소년 공동체 대표)

- ◆ 지정토론
 -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문 51
이은심 (중앙대 인권센터 전문연구원) / 53
이현주 (이화여대 영문학부) / 63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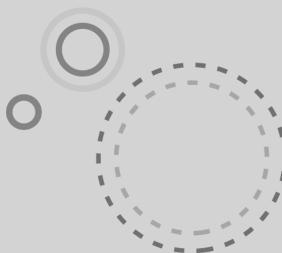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발제 1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발표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 '보호' 논리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실태 현장조사팀

1. 서론

십대의 가출은 주로 일탈이나 위기, 병리학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되어 왔다. 십대는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이며, 십대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이라는 사회 인식 때문이다. 사회는 십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집과 학교로 한정하고 가출 상태를 십대들의 적합한 위치를 벗어난 일탈로 보고 범죄화해 왔다.

하지만 현재 십대 가출은 이전과 다른 맥락에 놓여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급증한 신빈곤층이라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과 십대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노동중심성의 증가와 가족 '해체' 위기, 그리고 십대에 대한 가족들의 영향력 감소 및 돌봄의 공백, 교육의 양극화(변혜정, 민가영, 2007), 시장과 사회에 등장한 십대 등의 변화 속에 지금 청소년 가출이 놓여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변화된 요인은 가출과 함께 성매매로의 유입이라는 여성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표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가출의 맥락과 의미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여성청소년들은 가족의 노동중심성 증가로 인해 어머니와 아내가 수행해온 보살핌의 역할을 떠맡게 되거나, 이 같은 과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 뿐 아니라 집 안에서의 여성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과 위험이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을 더 이상 '집'으로 여길 수 없게 한다. 또한 집 안팎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은 여성청소년들이 자립하거나 집을 떠나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다는 여전히 보호라는 프레임 속에 이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

이미 시장경제 속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십대들의 위치가 점차 높아가고 있고, 사회문화적

으로 침대들의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침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사회적
 으로 독립 가능하거나 가족이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찍 독립해야만 하는 존재
 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신빈곤층의 증가와 사회 속에서의 침대의 위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더 복잡한 맥락과 과정 속에서 가출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은 집과 학교의 보호 속에 있는 미성년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출 정책 역시 이와 같은 이해 속에 있다. 청소년 가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가출청소년 보호소, 즉 쉼터 운영이다. 현재 가출 청소년 보호 쉼터는 크
 게 일시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기간이나 대상 등에 따라 여러 종류
 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출 쉼터는 보호자 연계를 통한 가정 복귀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짝 짜인 프로그램과 엄격한 생활 관리는 가
 출 침대들로 하여금 쉼터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침대 가출의 변화된 맥락이 반영되
 지 않는 채로는 현재의 가출쉼터 정책은 가출 침대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본 실태조사는 여성청소년의 가출 경험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보고, 가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현재의 가출쉼터의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10명에 대
 한 심층인터뷰와 쉼터관계자, 침대 가출 전문가, 침대인권운동가에 대한 자문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주 면접자와, 부 면접자 두 명이 함께 진행하였고 한회에 보통 2~3시
 간 가량 이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소개
 를 받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가족, 학교, 자원망, 노동, 소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 가출 청소년을 만나는 것과 함께 자문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자문인터뷰는 가출 청소
 년 대상 지원 사업을 하는 청소년 복지 전문가, 가출한 침대 여성 연구자, 청소년 탈가정 운
 동을 하는 침대 인권운동가를 만났고, 자문인터뷰를 통해 현재 여성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현실과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 참여자와 자문 인터뷰 대상자의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면접 참여자〉

| 이름 (가명) | 나이 | 학교 상태 | 가출경험 및 계기 | 가족 배경 | 현재 주거 |
|------------|----|------------------------|---|--|--|
| 영호 | 18 | 휴학 | 진보신당 입당과 철거민 운동 참여, 청소년인권 운동참여 경험 | 중상층 부모, 강남 8학군 거주 | 집 |
| 미영 | 19 | 고1 자퇴 | 고1때 초등학교 친구들과 재미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패턴을 반복함 | 부모님이 공장하시고 양아버지, 남동생이 있음 | 공원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현재 아는 언니 집 |
| 승미 | 19 | 중학교자퇴 (초졸이라 알바를 못함) | 가출계기는 가정불화 및 아버지의 폭력 |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다리 절단, 아버지는 무직. 생활 보호대상자 수급비로 생활. 아버지 폭력으로 어머니도 가출 및 연락두절 상태 | 부천역 인근 오락실 배회 및 노숙. 대안 학교 친구의 집에 낮에 가끔 가서 씻고 잠 |
| 수희 | 17 | 고 1 재학 | 경하와 가족 관계 경하와 동일 | 경하와 동일 | 경하와 동일 |
| 경하 | 19 | 고3 재학 (인터뷰 당시 방학) | 어머니 가출 후 단기 가출은 반복. 아버지를 성폭력으로 구속한 후 친가 친척들의 언어폭력으로 가출 상태 | 어머니는 어렸을 때 가출. 아버지를 성폭력으로 구속한 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2명의 동생과 수급비로 생활 중. 막내 동생과 함께 현재 가출함 | 부천역 인근 밤샘 배회, 사우나, 모텔 (다른 가출 아이들과 함께) 등 |
| 주혜 | 16 | 중2 자퇴 | 아버지의 폭력. 처음에는 단기 가출, 이후 장기 가출 | ‘밤일’ 하는 아버지와는 연락 두절. 전화번호와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함 | 노숙, 친구네, pc방, 찜질방 등 |
| 지희 | 17 | 중2 자퇴 |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림을 맡음, 집안일이 너무 지겨워서 가출 | 어머니가 최근 재혼하신 후,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음 |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거주 |
| 수진 | 19 | 대안학교 재학 | 단기 가출은 자주 (2~3일, 일주일 외박), 장기 가출경험도 몇 회 있음 |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거주. 고1 때까지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 현재 가출중단, 가족과 함께 거주 |
| 소현 | 17 | 고등학교 재학 | 3~4회, 각 50일 넘는 가출 경험. 아버지 폭력, 할머니 잔소리 | 초1때 부모 이혼. 이후 할머니, 아버지와 생활. 현재 할머니, 동생과 아버지가 구한 집에서 생활 | 가출당시 노숙, 앵벌이, 일시쉼터, 현재 가족과 거주 |

〈자문인터뷰〉

| 이름 | 나이 | 소속 | 경력 | 가족상황 | 거주형태 |
|------------|--|--|--|--|-------------------|
| 주리 (주연) | 18세- 고교자퇴 (중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 NGA; Network for Glocal Activism 활동가 | 중자퇴 후 경기도 소재 예고 문창과를 다니다가 한달만에 자퇴하고 친척집을 나와 서울로. 당시 서울에 사는 전애인과 동거.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이유 자체가 고교진학 보다는 성소수자/청소년 인권활동이었기 때문에, 자퇴 후 활동시작 | 울산 현대차를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 서울에서 애인과 동거 |
| 민가영 | | | 서울여대 교양학부 조교수 | | |
| 이정아 | | | 물푸레나무 대표 | | |

2. 여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

가.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청소년 가출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여성 청소년들 중 적극적으로 가출을 ‘출가’ 혹은 ‘독립’이라고 명명하는 한두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층이었다.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별이 노동이나 재혼 등의 생존을 위한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가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자녀보살핌이나 훈육과 같은 부모의 역할은 약화되고, 물론 자녀에 대한 영향력 역시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적 개인주의를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며 사회적 안전망과 집합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개별화 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빈곤은 생계부양자 모델의 해체와 개별 노동자 모델의 확산 속에서 성별분업에 기반 한 가족 중심 삶에 대한 전망 상실과 함께 개인에 대한 가족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약화 시키는 특징을 지닌다(민가영, 2008).

특히 현장조사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집 안에서 엄마가 부재하거나 엄마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상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가족 내 어머니 혹은 아내라는 성역할을 딸인 여자 청소년들에게로 전과되도록 하고 있다.

저 유치원때. 그래서 제가 유치원 못 다니고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엄마가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무릎까지. 의족 하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의족이 무거워서... 근데 의족 하기 전에는 병원 신세를 졌는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모도 몸 불편하고, 할머니도 불편하고. 아빠는 일 한다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엄마 돌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소변통 버려주고 갈아주고... (중략)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좀 협박하는 스타일이예요. 좀 사이코처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엄마가 그거 듣기 싫어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엄마 있을 때만 집에 있고 거의 나와 있어요.(승미)

엄마가 재혼하셔서. 원래는 엄마랑 둘이 같이 살았어요. 엄마 재혼하셔서 따로 나와 사는거.

- 교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올 해 재혼하신거야? 네. -왜 따로 살게 된 거? 제가 싫어서요. 서울에서 쪽 살다가 경기도 간다는 것도 싫고. 경기도 가서도 학교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가평에서도 완전 시골이예요. 지금 혼자 사는 집에 계속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니까 작은 데로 옮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후엔 엄마랑 6-7년 정도 쪽 살았어요. - 엄마가 이번에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도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남자는 모른다고 이모도 그렇고 힘들어도 혼자 살아야 한다고. - 지금 밥은 혼자 해먹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해먹었어요.(민지)

(엄마랑 같이 살수는 없어?) 아니요. 제가 가면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오라 그래요. 근데 가면 둘다 고생하니까. 왜냐면 제가 생활비를 받아요. 받는데, 제가 그 새아빠한테 학원다닌다 빙치면서 받는거거든요. 학원비 30만원씩 줘요 엄마가. 그... 엄마가 엄마맞도 갖고 제 생활비도 쓰고 하라고. (그럼 집에서 30만원씩 받아?) 아니요 거의 80만원. 집세가 50만원이고. (그럼 집세 빼고는 30만원 학원비 주시는 거고?) 근데 그것도 제가 쓰는 거는 한달 용돈 5만원이예요. (그럼 25만원은?) 그니까 30만원은요, 엄마 빚으로 따 빠져나가요. 그니까 저한테는 2주에 한번씩 엄마가 한 5만원씩 줘요. 총 한달 따지면 십만원씩.(민지)

엄마를 돌보아야 했거나, 밤낮으로 생계노동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살림을 해야 했던 경험, 혹은 집에 엄마가 부재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출 여성 청소년들에게 집은 쉽이나 보살핌의 장소가 아니다. 민지의 경우는 엄마의 재혼으로 되려 엄마가 ‘승인’하는 합법적 ‘출가/독립’의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게 된다.

다 웬만하면 요즘애들 노는게 다, 공부해봤자, 공부해도 못하면 안 좋은 소리 듣고, 잘 해야지 무조건 잘해야지 좋은 소리 듣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을 한다고 해봐요. 중간을 해도 나중에 대학교가 취직할 때는 아예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공부를 해야 되지, 그 생각. 전교등 아니면, 해도 좋은 대학교도 못가는데 뭐하러 공부를 해야되지, 이런 생각도 하구요.(수진)

수진의 공부에 대한 현실감각은 신자유주의 신빈곤층의 증가와 양극화라는 맥락 속에 있다. 공교육은 이미 과도한 경쟁 속에 있고, 어렵게 사는 부모의 모습과 가족의 처지를 보며, 이미 부자가 아니거나 성적이 최고가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이 없는 상

태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청소년들의 비유예문화¹⁾와 일상적 가출문화 배경의 일부를 차지한다. 또한 시장경제는 청소년들에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학교나 공부에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외에, 저임이지만 당장의 벌이가 가능한 선택지를 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는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가족적 배경을 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에게 자신의 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기도 한다.

저는 서빙 하고, 주유소하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그것만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 반응이 어떠셨어요?) 니가 일을 하나 그랬는데, 일하고, 동생한테 돈을 주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엄마한테 놀러간다 하면 돈을 주시고, 제가 보호관찰 중이라. 직업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탔는데, 총 60만원을 탔는데, 그 중에 50만원은 엄마 손으로 다 넘어가고. 그랬어요.(미영)

가족이 자신들의 바람막이나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배경만으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과 소비자본주의 공간과 최근에는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이 청소년들에게도 일부 열리고 있는 현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과 학교 외의 공간들을 다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 집과 학교 외의 삶을 상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문화는 청소년 문화 전반에 퍼져있는데, 특히 ‘비유예문화’와 가족 외의 비공식 자원, 관계망을 결합시킨 가출문화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 가출 의미와 다양성

집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공간으로,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화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져 온 한국에서는 세대의 재생산, 자녀 돌봄의 일차적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것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에 나가기에는 미성숙하고 위험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집, 즉 가족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다. 이와 같은 집과 청소년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제껏 청소년 가출은 집과 가족,

1) 비유예 문화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재를 유예하는 것을 거부하며 현재 즉각적으로 손에 쥌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일련의 태도, 가치를 일컫는 개념”(민가영, 2009:92)을 뜻한다.

학교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자 더 나아가 반사회적, 비규범적인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 가출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집’의 의미를 질문하게 만든다. ‘집’은 지금 여성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인지, 여성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왜 이들이 집을 나오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가출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집은 보살핌과 안식의 공간이라기 보다 노동과 폭력, 무관심의 공간인 경우가 많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개별 주체가 되기 위해 떠나야 하는 곳이다. 집과 부모에 대한 이전과 다르게 변화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식은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을 나오도록 만든다.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출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등장하고 있다. 가출을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닌 ‘집을 찾기 위한 여정’(윤선미, 2011)으로서 의미화하거나 병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유서구, 2012)으로 봐야한다는 연구들은 더 이상 청소년의 가출을 전통적 방식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딱 가출하잖아요? 그럼 발랑 까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양아치야 이리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서 몇몇 애들이야 그냥 놀고 싶고 그래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또 다른 여자들은 집안에 사정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래서 나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대부분 가출했다고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것보다, 그냥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채 떠들지 말고, 차라리 알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까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수진)

수진은 가출을 ‘제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 “대부분 거의 또 다른 여자들은 집안에 사정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래서 나와 있는 거”라고 가출의 맥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청소년인권운동가 주연은 수진이 말한 바와 같이 가출에 대한 낙인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아예 가출이라는 말 대신 ‘탈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는 이수나로 등의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은 가출이라기보다는 독립/자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탈가정이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가출은 낙인찍을 때 많이 써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가출

보다 좀더 지속적이고 좀 더 기반을 잡고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출은 1회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탈가정은 자신이 커뮤니티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주연)

본 실태조사에서 만난 탈가정, 출가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상층 계층의 가족 배경을 가진 영호라는 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영호는 광주 논술학원에서 진보신당 당원 선생님들을 만나서 사회운동, 사회주의에 눈을 떴다고 한다. 고1때 부모의 교육관으로 서울 대치로 전학을 왔고, 우연한 기회에 명동 마리 집회에 나가는 친구를 따라 다니면서 진보신당 당원이 되었다. 주로 영호의 가출은 집회 현장에서 밤을 샌다거나, 대학생인 진보신당 당원인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사회운동원들과 지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영호는 자신이 ‘가출’ 혹은 ‘출가’, 즉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부터 집에서보다 더 큰 꿈을 꾸다. ‘출가’를 함으로서 운동하는 집단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났고, 제도권 교육 내의 또래들보다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출가와 가출이 어떻게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청소년이 좀 쉽터처럼, 원래 쉽터 만들어진 배경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거처할 곳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출가라고 불렀었는데, 가출이 아니라. 그런 이유는 그 어... 스스로, 부모님이 죽도록 미워스러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는 그 생활이나 사고에 있어서 인정받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어, 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 나도 하나의 주체다 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출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호)

영호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가출’한 보기 드문 케이스로, 한국 사회 청소년인권운동이 등장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가출이다. 하지만, 가족 내부의 다양한 문제로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들이 택한 ‘기존’ 방식의 가출들 역시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출가’와 ‘독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집을 나온 상태를 절망으로 여긴다거나, 집을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보다는 예술 쪽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담임이나 엄마나 다 한 말이 그거였어요. 니 쓸데없는 꿈꾸지 말고, 공부나 해라, 니가 그거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더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더 빠를 거라 생각해요. 저는 무작정적으로 공부 우선, 우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찍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자퇴를 했어요. (중략) 저는 원래 예술 쪽 가고 싶었는데, 꿈을 포기했었잖아요. 꿈 포기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인문계 가다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보충도 추가돼, 야자도 추가돼, 이리다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다 갑자기 앉아서 하루 넘게 만나질 넘게 이려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당당하게 자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퇴하면 너가 무슨 수로 성공을 하겠냐, 그냥 참고 3년 다녀라 이런 식으로 애길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3년 동안 거의 365일을 이려고 어떻게 앉아있어요. 힘들잖아요. 차라리 학교 다니는 것보다 그 제가 꿈을 이루는 쪽으로 해야지, 전 비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 상태로. 막 이제 집을 나가면 내가 놀 수 있을만큼 놀고, 엄마한테 반항도 하면서, 재밌게, 애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나왔어요.(수진)

아빠 잔소리랑. 잘못해가지고. 애들만나는데 늦게 들어온다고 막. 옛날예요 아빠가 바가지로 막 때려가지고 손에 흉터도 났어요. 아빠가 막 머리로 때리고요. 바가지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무서워서 안들어갔어요. (중략)아빠가 성폭행해가지고요. 그러가지고요. 그런데요 아빠한테 속아가지고 고모들이 막 난리치고요. 내가 니네 봐줄줄 알고 이려고 막 협박을 계속해요. 지금도 막 계속 해요.(중략)고소한 걸로 고모들이 막 미친년이라고 그러고요. 고모한테 막 싸대기도 맞았어요. 싸대기 때리고요. 큰엄마가 말려가지고요 고모랑 아예 막 싸움이 일어날 뻔 했어요. 고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아빠가 진짜 실제로 그랬냐고. 니 말 똑바로 해야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다고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근데요 짐 아직도 저한테요 뭐라 그래요. 장난 아니예요.(너무 힘들었겠다.) 네. 차라리 그냥 혼자서 살고 싶어요. (중략) (지금 나왔잖아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그냥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구요. 돈이랑 씻을 데랑, 또 잘데 필요하고요.(경하)

아빠가 저한테 막 제가 막내여서 이빠하잖아요. 침에 나한테 보뽀해달라고 하면서. 아빠도 저 이쁘데, 예뻐서 한 거 다 아는데, 아빠가 울면서 까지 애길 했었어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소리로) 만지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저한테는 나는 니가 막내라서 이빠서 이빠서 했는데, 그럼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막. 막 그러는 게 제가 싫었어요. (중략) 근데 제가 막 아빠랑 한 집에 있다가, 한 번, 자다가, 아빠가 이제 막 저한테 막 남자랑 잔지 알고, 의심하니까, 막, 손가락 넣은 게 아니라, 저랑 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만지고. 아빠가 막 솔직히 만지고 그랬어요.(수희)

아빠가 욕하는 것도 좀 그렇고, 때리시고. 할머니도 잔소리가 좀 심하고... 막, 동생이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막 화풀이 하시고 욕, 제가 대들면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가출했어요. (아빠 무서워?) 네. (그면 가출하면 더 무섭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아빠랑 맨날 싸우고 그랬어요. 전화로. (중략) 막 욕하면서 들어오라고. 어쩔 때는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침터에서 살으라고. 나 너 같은 딸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침터에서 살으라고 그런 말 할 때도 있고요. 뭐 심한 말 할 때도 있어요. 남자들이랑 다리 벌려서 그거 하라고 그러고. (중략)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 집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아빠가 일하러 갈 때마다 그냥 들어가구요.(소현)

아빠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일주일 내내 마시고 그래요. 집에 와서도 한 병 한 병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짜증내요.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진짜 그렇게 말해요.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술 끊으라고 미쳤냐고 아빤 아무 말 안

하고 끊게 좀 해달라고. 아니 끊는다고. 술 마시고 주정부리는데 엄마가 좋아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랑 같은 공장에서 아빠가 사장이니까, (엄마랑 같이 일하시나 봐요네. 짜증도 내고. 솔직히 아빠한테 제일 짜증 많이 내요. (아빠가 술 먹는 게 왜 싫어요?) 술 마시면 했던 말 또 하시고. 엄마랑 싸우다 보면 손 올라가고, 폭행하고 그래버리니까.(미영)

수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가출하였다. 수희와 경하는 아버지로부터의 근친성폭력과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고모들의 폭언이, 소현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가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미영 역시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이 가출의 계기이다.

이들은 지금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가정’이나 ‘출가’운동과 달리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가족적 상황에 ‘떠밀려’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들의 최초 가출 동기는 ‘자발적 독립’의 의지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족 안에서 겪은 경험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 부조리하고 자신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출할 수 있었다.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족이 보호해줄 수 없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일탈이나 ‘비행’ 등의 기존의 청소년 가출이 정의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 할 필요가 있다. 집이 ‘집’의 기능을 하지 않는 배경의 여성 청소년들의 삶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청소년들의 가출은 오히려 독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다. ‘집’이 되어주지 않는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며, 일시쉼터는 전국에 10개소, 단기쉼터는 46개소, 중장기쉼터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최순종, 2011). 그러나 이 쉼터는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출”에서의 “집”의 의미가 1차적인 사회적 보호망이나 안전망,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돌봄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공간으로서, ‘나가야만 할 공간’으로서 되어지고 있다고 할 때, 현재의 ‘쉼터’는 그와 같은 청소년의 가출

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성되어진 공간이 아니다. “가출”을 청소년기의 일시성과 변덕성에 의거한 일탈행동으로 정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진 ‘쉼터’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한다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져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집’이 돌봄과 재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착취의 공간이 되어지는 상황 속의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쉼터’의 공간성은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며,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쉼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최악의 경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궁지의 상황에 처할 때, 이를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너 쉼터 가봤었잖아. 쉼터가 어땠으면 좋겠어?)

자유도 많이 주고요. 밖에도 나가게 해주고요. 핸드폰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어떤 점이 제일 싫었어?)

비밀에 못나가는거랑. 애들이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안 되잖아요. 전화 못받게 하고 그럴 때가 제일 싫어요. (어떨 때 주로 쉼터로 가게돼?) 씻고 싶을때요. 돈떨어졌을 때요. (그럼 돈 있을 때는?) 사우나. - 경하의 인터뷰 중 -

경하의 맥락 속에서 쉼터는 ‘돈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만, 마지못해 재빠르게 이용하게 되는 선택이 된다. 경하는 이를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자유’는 한편으로는, 실사 고생할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출’을 통해서 경하가 적극적으로 쟁취하게 된 것이다. 집을 나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집과 비슷한 쉼터를 반길 리가 없다.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남자친구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다른 십대 인터뷰자는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쉼터가 청소년들의 진정한 쉼터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들을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쉼터는 그저 거리로 나온 이들을 단속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게다가 쉼터는 가출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가정폭력을 겪고 가출한 아이들이 쉼터에 갔다가, 가족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다시 폭력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나왔는데, 부모연계를 해서 돌려보내니까 문제였다. 쉼터 명단을 다 뽑아서 하나하나 부모 연계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거의 다 했다. 부모에게 알리는 게 원칙인데,

안 그런데는 탈성매매 청소년 쉼터가 있었고, 그래서 그 (15세인) 사람이 그냥 성매매 한번 하고 저기 들어갈까? 이런 말도 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폭력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증거 없다고 성립이 안 돼서 다시 가해랑 같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쉼터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관이기에 한계적이고, 또한 규율이 대개 엄격하고 통제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다. (주연)

이처럼 쉼터가 가출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고 속에서 운영될 때,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쉼터는 가출한 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의 공간이 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쉼터의 컨셉은 이들을 오히려 길 위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떠난 집, 그리고 이들이 집과 함께 떠난 공간인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돌봄과 가르침의 공간인 집과 학교를 떠나 거리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이들은 대체로 많은 경우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가출을 행한다. 이는, 이들에게 있어서 집과 학교가 돌봄과 가르침, 재생산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쉼터는 이처럼 집과 학교에서 나오게 된 아이들이 찾게 될 공간이다. 따라서 쉼터는 기존의 집이나 학교에서의 규범이나 규칙, 집과 학교에 소위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 ‘모범생’ 아이들의 행동 양식의 기준에 맞춰져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놀러다니는 것이 즐겁고,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잘 헤어지는, 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뺑뺑이, 구걸하기 등이 일상화된 거리의 생활이 체화된, 가출한 십대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사고하는 속에서 쉼터의 컨셉이 새롭게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질문자 : 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애요?)

글쎄요, 우선은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가정에서 나왔으면은 돈을, 계속 얘기 하지만 경제적인 독립성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쉼터에서는 어느, 어느 그 상황이든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부분. (중략) 청소년이라면 필연적으로 현재는 계속 가정

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질문자 : 한마디로 자립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한 여성단체에서는 그, 쉼터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따로 이제 카페나 분식집 같은 그런 것들 마련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계속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쉼터를 다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간혀 있는 곳이 아니라 가정외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기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영호)

영호는 쉼터가 십대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호는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실제로 가출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번 연구를 위해 만난 가출한 십대 여성들은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보다는 ‘아는 오빠’나 ‘술을 사주겠다는 아저씨’ 등에게서 ‘돈’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성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조건하는 언니 아는 오빠 집에 있다가.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그 오빠는 저랑 열 살차이 나는데, 삼촌이라고 부르라 하고 저한테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언니하고는 맨날 그런게 있었는데, 넌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 오빠는 지금도 연락하는데,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서 연락하는거예요. 짬뽕방 보다는 모텔갔어요. 그 언니가 돈을 내줘서. 주말엔 얼마인지 모르는데, 평일 날만 갔어요. 둘이 하루있다가 나오구. 그 언니가 혼자 (조건을) 뿌려갔을 때. 저 혼자 pc방에서 멍뚱뚱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쪽지가 막 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조건쪽지? 그렇게 많이와?) 진짜 장난아니게 많이와요. 저 그때 참 알았거든요. 장난 아니게 충격받았어요. 카페 같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언니가] 가면요, 17만원 11만원 이렇게 받아오니까.(수희)

원래 동료 오빠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자꾸 먹이거든요. 얼마지 아니까 주량이. 동료오빠들이랑 저 절대 안먹어요. 원래 남자들이랑 잘 안마셔요. 동네 오빠들이랑 술 먹은적 없어요. 저 진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술취해서 자빠지는거예요. 겁나, 엄청 때렸어요. 아무짓도 안했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요.(수희)

어제도 막 저랑 같이 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지 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욕을 했어요. xx!! xx!! 그랬더니 어~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이랬어요. 전 솔직히 막 남자랑 자는 거 싫어해요. 저 202호로 언니 데리고 나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막 전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씻을 땐 어떻게 씻으라고 했더니, 막 같이 씻냐? 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안 할테니까. 저한테 어제 막 따귀 맞았어요. 자꾸 하려고 해서 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그랬어요. 싸대기 진짜 때렸었어요. 근데 오빠가 화가 난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오빠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전 솔직히 누가 제 몸에 손 대는 거 진짜 싫어요.(지희)

인터뷰자들은 모두 자기가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상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익명의 남자들과의 만남’은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짜릿하고 재미있는 가출한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 ‘십대 여자애들과 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최소한 가출한 십대 여성들에게 컴퓨터보다는 더 유용하고 유익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익명의 남자들과의 어울림의 일상화가 가출한 십대 여성들에게 실제로 위험한 것은, 성폭력의 상황이나 성매매의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이 아니다. 사실, 가출한 여성들과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금전적 대가 혹은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성적인 접근을 행하는 남자들과의 관계는 기존의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성폭력, 성매매의 프레임으로는 제대로 분석해낼 수 없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어린 여자’라는 것이 가지는 것과 이들을 욕망하는 익명의 남자들이 만나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성폭력적이고 성매매적인 것들이 위험과 쾌락, 돈과 교환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린)여자’라는 것이 자원이 된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젠더적 존재로 체현하게 되는, 이 익명의 남자들과의 만남이 일상화되어버리는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상황이 된다. ‘어린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당연하게 사고하는 십대 여성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세계를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성찰해볼 수 있는 행위성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배움이나 열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익명의 남자들이 좋아해줄만한)여자화된 존재로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십대 여성들의 젠더적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에서는 이 십대 여성들에게 ‘남자와의 만남을 금지’시키거나, ‘성매매’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남자와 만나고, 그 만남을 즐기게 되고, 이를 유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이 십대 여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젠더적 존재로서의 십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교육이 함께 행해져야만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려내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서는 행해지지 못했던 다른 방식의 인성교육이나 성교육과 함께 자립 프로그램이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쉽터에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쉽터가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가족을 떠난 아이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금방 떠나가는 빠른 시간성을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끊임없이 주기를 바꾸고 짧게 하고 거주지도, 사람도, 그런데 개체들은 소속감을 중시 여겨요. 그 짧은 오토바이 폭주족과 어울리는 짧은 순간에도 그들과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통해 안전하고 즐겁다고 느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쉽터보다 오토바이 족들과 있을 때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즉, 쉽터가 아이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소속감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의 프로그램의 문제는 뭘까. 사실 그 프로그램들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을 못시켜주는 거죠. 쉽터나 기관의 문제를 찾자면, 사실 그걸 해결해야 하는 건데요. 애들은 거의 집에서 이걸 못 받은 애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공 사유재이기 때문에 집에서 못 받으면 그걸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걸 공공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건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헌신해줄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공공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애들을 좀 공공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가영)

자문인이 지적하고 있듯이,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가출한 십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가출한 십대들은 대부분 타인과 맺는 관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 ‘존중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과 ‘자아존중감의 부족’은 이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관계성의 성질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게 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해 불신하고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적이거나 힘든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화되어, 세계를 보는 틀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십대들’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에 대해 신뢰하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한다는 목표로 이들을 교육하거나 훈육할 땐, 결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적 증거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성을 지닌 십대 스스로가 자기가 타인을, 자기 자신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귀한 존재'임이 당연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가영도 지적했듯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다. 이 모든 역할을 쉽터가 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맺고 있는 일시적인 관계성, 불신의 만연, 잦은 거짓말 등을 기존의 잣대나 규범의 틀로 해석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좀 더 넓은 세계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부천의 청개구리심야식당을 들 수 있다. 청개구리심야식당은 부천역에 1주일에 한 번,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고민상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거리에서 직접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이곳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고 용이하다. '쉽터'처럼 멀리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면 뭔가를 꼭 해야 하는,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이나 규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일단 가서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쓰고, 밥을 먹고,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정아씨는, '살 곳', 더 정확히는 지낼 공간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집을 나와 거리에서 살고 있고, 기존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들이 거리보다 좀 더 편안하고, 기존의 집보다 애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안적 가족 관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멘토가 이들과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규칙과 규율을 정하고 가족을 운영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속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쉽터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돌봄과 애정,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관리인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회 복지 시설로서의 쉽터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함께 행해질 수 있는 돌봄과 애정, 교육의 공간으로서 쉽터의 컨셉이 새롭게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라. 개별적 안전 지침의 구축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개별 단위가 아니라 부모에게 부착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사회 성원이 될 수 있는, 반쪽짜리 성원으로 간주된다. 그나마 ‘보호자’가 없는, 혹은 ‘보호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반쪽짜리 성원도 될 수 없다. 이러한 틀에 대한 사회적 고려는 부족한 듯 보인다. 현재 ‘보호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예전에 이대에 원룸을 구해서 함께들 살았을 때, 15세 활동가인 분이 가정 폭력 때문에 나오셨다. 살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노동법이 만 15세 미만은 금지되어 있어서 17세라고 속이고 하다가 증명 등을 떼 오라 하면 그만 두고 하는 식으로 단기 알바하고 그랬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15세 미만 노동을 다 풀어야 해야할지, 그들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해야하는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린 사람의 노동은 성인 노동보다 저평가되어 저임금 노동이고, 가게 이미지에도 안 좋다. 그래서 시급을 낮게 주려하는데, 시급 6000원인 곳은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청소년이 뽑히지 않고, 4500정도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안하고 청소년들이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환경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고, 청소년이라고 돈을 깎거나 짤릴 때도 일순위이다.(주연)

(알바는 어떻게 알아봤어?) 인터넷이요. 알아봤는데요 알바자리가 잘 없어요. (어떤 알바 주로 했어?) 주방. (그때 알바할 때 얼마 줬어?) 시급이요 3천 4백원이예요? 한 달 일했는데요. 10만 5천원 줬어요. 막 돈 안 줄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 새끼 사기꾼이예요. 사기꾼.(경하)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노동 시장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존재들로 간주된다. 부모동의서와 함께 비로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체계 안에서 부모동의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로 전락한다. 이들은 초단기적인 노동 현장에서 잠시 동안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나와 있을 때 돈 버는 거는 앵벌이 말고 또 뭐해?) 전단지 알바. (또?)저희는 전단지 밖에 못해요. (전단지 밖에 못해? 전단지 하면 얼마나 벌어?)2만원? 3만원? (소현)

돈은... 제 지금 얼마 있는 지를 잘 모르겠는게,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민법상으로도, 선거권이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형식상, 형식적으로라도 부모님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는 그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저는 주인이 아니고 어, 그렇게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드라고요. 뭐 그냥 주민등록번호 그냥 까고...

[민증이 없으니까...] 민증도 없고. 네, 그냥 거짓말치고, 쳐가지고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뭐 개인 조회해 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불러요?]

친구랑 이제 다 찼죠. 그, 제가 자주 안 먹히는 거예요. 스무살이라고 해도 자주 보여달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집은 이제 빼고 어쩔 수 없고, 좋은 집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현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카드기가 있는데 카드에 돈을 뺄려면 부모님 동의를 필요해요. <체크카드? 그냥 기계로 빼면 되잖아요?>근데 그게 비밀번호가 3번 틀러가지고...

(그거는 그렇지...)그래서 완전 망한 거예요.(웃음)(영호)

영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자체로 주어진 권리가 없다. 자신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틀려서 은행 창구에 틀러야 할 때조차 부모와 동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런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앞서서도 기술했듯이 이들은 모든 종류의 ‘보호’를 ‘구속’이나 ‘억압’과 동일시하며 거리에 나와 있다. 보호를 보장받을 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상실한 상태에 놓기에 된다.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원했던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 최소한의 생계비 등의 방패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거부한 부모들에게 이들은 성가시기만 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건 너무 많은데... 저는 알바 할래도 나이는 많은데 초졸 밖에 안되니까 써줄 사람도 없고. 용돈도 안 줘요 집에서.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맞으면서까지 받았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웃도 사고 싶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맞으면서 받았어요.(승미)

(아까 뭐 단체에서 돈 나온다고 했던건?)저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용돈도 안 주고.(승미)

승미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몫으로 배당된 기초생활비는 보호를 거부한 부모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돈은 이들의 생활비가 될 수 없다.

(지금 주혜이에게 제일 필요한 거?)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잠자리.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해요. 근데 알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조건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 비위가 안 맞아요. 개네들은 바라는 게 많고 저는 하기 싫고, 이거 저거 다 해달라고 하고, 돈 냈다고 이거저거 요구하고. (왜 알바 할 데가 없지?) 안 받아줘요. 나이. (일 하고 싶어?) 하고 싶죠.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주혜)

항상 길거리. 막 옥상에서 자고 추운날, 그 때 겨울이었어요. 패딩 입고 자는데, 패딩있고 옥상에서 자는데 너무 추운거예요. 신문지를 깔고 잤죠. 신문지를 깔고 자는데도 너무 추운거예요. (혼자?) 친구들이랑요. 언제는 막 화장실에서 자고. (어떤?) 변기통에서. (역에 있는?) 네. (와...) 어쩔 땐 막 돈 있을 땐 찜질방에서 자거나 모텔에서 자거나. (피씨방은?) 피씨방에선 안 자요. (밖에서 자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데요, 제가 물리칠 수 있으니까. 제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 받았어요. 짜리몽땅해도 발차기 잘해요. (위험한 상황 없었어?) 네. 없었어요. (주로 친구랑?) 네. 친구랑 있을 때도 있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좀 무섭잖아?) 별로 안 무서워요. 노숙자 아저씨는 노숙자고 저 아빠한테 그런거 많이 배웠어요. 남한테 너무 쫓지 말라고. 너가 막 쫓면은 남이 널 쉽게 본다. (여긴 좀 안전한 장소가 있어?) 네. 그냥 화장실, 화장실이 최고예요.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구겨져서) 이렇게 자고. 언제는 또 변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주로 이 근처 부천에 있어?) 거의 여기에 있어요. (같이 가출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다. 떠돌이들. (어떻게 알게 돼?) 그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가출, 가출이세요? (딱 알아봐? 넌 어떻게 알아봐?) 아, 혹시, 가출이세요? 가출일 경우에는 서로 같이 다니고 그래요. (주로 여자애들이랑?) 네. 여자애들이랑요. (남자랑은?) 남자 친구, 친구인 가출 한 애 있으면 같이 다니기도 해요.(수희)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기초적인 생계비가 늘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동시에 안전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는 일이 요원한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은 쉼터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사회 속으로 걸어 나왔다고 간주되는 이들이 거리에서 손쉽게 만나는 상대는 이들의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인 남성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젠더화된 시장에서 구축한다. 이들의 비유예/비훈육의 상태는 ‘영계’를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는 속성으로 환원된다.

(밤에 돌아다니면 뭐해?) 밤에 돌아다니면요. 아저씨들이 막 자자고 그래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자자고 하면 자는 친구도 있어?) 네. 넘어가면. 어제에도 막 아저씨가 술 먹으러 가자했는데요. 제가 뭐야 막 이려고 욱했어요. 아는 언니가 들어가시고요. 말로 조져버려가지고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이 아저씨가 술먹으러 가자 했다고 근데 그새 끼는 안했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고 안하고요. (경찰에 가서 얘기하면 경찰아저씨가 어떻게 해주는데?) 아저씨 데리고 파출소에 가요. (진술서도 쓰고?) 아니요. 파출소 가면요 좀 있다 그냥 나와요. (그럼 너는 그런 일 있을때마다 신고하는거야?) 네. (많이들 그렇게 물어봐?) 네.(경하)

원래 제가 있던 돈 다 쓰고, 주위에서 연락해서 돈 빌리거나. 만약에 돈 정말 없고 잘 때도 없고 이러면, 친구나 아는 오빠네 집 가서, 오빠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잖아요. 여자애들인데.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오빠들이 거기서 막 자고. 신세를 지면 저희도 그만큼,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러거나.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딱히 불만이 있다기보다- 신세를 지면 청소를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만약에 밥을 먹는다 해요. 그러면 밥을 하고, 같이 먹고 뭐 설거지 해주고, 또 사소한 거 집안일은 할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 별로, 그런, 나쁜 일은 별로 없었어요. 좀, 이제 바라는 점도 있죠. 막, 이제 같이, 어떻게 재워주면, 한 번 해볼려고 막. 저는 아닌데, 제 친구는, 제 친구는 제가 어디가 있을 때 막 같이 자고 그랬었대요. 저는 딱히 그런 거 없고.(예주혜)

(어린 여자아이들이 남자 오빠들이 술 먹자 하면 좋아해?) 좋아하죠. 아무래도. (몰랐어, 그건 정말) 맞아요. 어린

들이 어린애들한테 과자 사줄게, 이러면 좋아하듯이,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돈이 없다, 이러는데 사줄게, 그러면 오 대박, 오 콜! 이러면서 좋아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는 술을 저희가 막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사줄게 그러면 좋다고 하고 먹어야 먹어요. 그 나이엔 술 많이 못 먹고, 얼마 안 먹어봤으니 막 금방 취할 거야네요. 저도 막 막 먹고, 한 병 먹고 기절했나 그랬어요. 그 때 절 강간을 한 거예요. 아는 오빠들이, 좀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제가 무섭고 신고를 못하니까, 그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예주혜)

이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 속에서 남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의 보호를 거부한 순간 잃어버린 안전망을 인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일시적으로 구성된 인맥은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이 되고 이런 일시적 인맥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맥은 일시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해 줄진 몰라도 언제나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함께 지내는 무리에서는 청소나 방 정리 등 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기도 하고, 잘 곳을 제공하는 남성으로부터는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요구된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존 법칙을 깨달은 이들은 자신만의 안전 수칙을 마련하기도 한다.

(술은 잘 마셔?) 술은 두 병. (잘 마시네?)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랑 마셔도 안 져야죠. (왜?) 남자랑 마시면 불안하잖아요. 남자들이 이상하니까. 남자들보다 먼저 취하면 안 돼요. (술은 자주 마셔?) 아뇨. 자주 안 마셔요. 술 끊었어요. (왜?) 술 냄새 원래 안 좋아하고. 분위기를 즐겨요 저는. (보통 어디서 마셔?) 지금은 호프 이런 데 잘 못 가니까 방 잡고 마시는데. 호프는 단속이 심해요. (누구랑 마셔?) 친구들. (친구 많아?)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은 가출한 애들?) 아니요. 학교 다니는 애들. (개들도 나오고 싶어 하니?) 그렇기는 한데 제가 나와 있으니까 말려요. (네가 말리는 편이야?) 네. 개들이랑 저랑은 다른 게 있으니까. (뭐가?) 개들은 너무 어려 보이고. 너무 어려 보이면 건들잖아요. 너무 어려 보이는 애들이 길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주혜)

주혜는 남자들과 술을 마실 때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 먼저 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무 어려보이는 애들은 거리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주혜이는 16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옷차림과 화장을 한, 매우 성숙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 자신의 이러한 외모 역시 거리에서 터득한 생존 전략으로 설명해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좀 가까이 와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을 안 가서. (한 쪽 목이 부었음. 목 부은 이야기 계속 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가면 집 들어가서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편도염 같아요. 그래

서 찬 거 계속 먹어요. 입 안도 같이 부었어요. 편도염에 크게 걸렸어요. 여기 편도가 양쪽 여기 있는데 입 안에가 여기 지금 하얗게 부었어요. 겨울 지나 봄 때쯤부터. 편도 잘르면 집에 가야 하잖아요. 편도 잘르기 전에 목이 잘린 텐데. (여기 물푸레나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제가 쉽터를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갑갑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특히 그 역곡 여자 쉽터.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땐 뭘 해야 되고 그땐 뭘 해야 되고.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혜)

이들은 가족 내 존재로서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쉽터 등에서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를 거부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안전 수칙들을 통해 사적 안전망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안전 수칙들은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잘 곳과 생활비이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건강의 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간과된다. 위의 주혜이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주혜이는 현재 편도선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문제 때문에, 혹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호자 동의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3. 결론: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사교육으로 지친 십대부터 거리에서 사는 십대까지, 십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놓여 있다. 이 때, 이와 같은 다른 상황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성별, 성적지향, 거주 지역, 가족 구성의 형태 및 사회적 지지 집단, 사회적 자원과의 접근성 등에 의해 위계화 된 차이다. 그리고 이 위계화 된 차이는 십대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함께 작동하여, 십대들 내부를 위계화 한다. 그러나 이 위계는 “십대” 시기라는 “일시성”과 “아직”이라는 시간성과 함께 작동하여 십대들 내부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이 안에서의 십대 시간성은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의 시간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 십대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개입되면서, 십대들이 놓여 있는 지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복잡한 지형 속에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위치된다. 따라서 가출한 십대 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지형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십대들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가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적 개인주의를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며 사회적 안전망과

집합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개별화 시키면서, 신빈곤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 중심 삶에 대한 전망 상실과 함께 개인에 대한 가족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십대들에게 ‘가출’은 단순히 일시적인 청소년기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재질문하게 하는 사회적 상황이 된다. 가출 청소년의 많은 경우 ‘가족’에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가족을 벗어나 거리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십대의 가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집을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를 문제삼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십대에게 주어지는 ‘쉼터’와 같은 국가 정책이 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 전혀 살펴보지 않고, ‘모범생 청소년’의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훈육하고, 이들이 문제를 느껴 나온 ‘집’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지니게 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돌봄과 애정, 그리고 인문학적 교육이 가능한 대안 공간으로서 새롭게 구성되어져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처럼 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스스로 안정망을 구축해나가는지에 대한 지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집을 나와서 거리에 산다는 것은 일견 위험해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이 집을 나오는 것이 ‘집’이 거리보다 더 위험해서라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집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대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공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처럼 개별 가족에게 인간의 재생산과 돌봄을 거의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자원이 부족한 십대, 그리고 여성들은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가출한 십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개별적인 가족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자원으로만으로도 이들이 안전하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욱, 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장기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가영, 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52호
- 변유선, 2012, 일시쉼터의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혜정, 민가영, 2008,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 유서구, 최은영, 2012, 가출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무자 지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권 1호
- 윤선미, 2011, '집'을 찾는 여정으로서 가출 : 청소년들의 장기 가출 경험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순중, 2011, 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 청소년학연구, 제18권 6호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총평 및 제언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배경

청소년 가출은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하는 중요하고 고마운 ‘집-가족’이라는 곳으로부터의 일탈이 부각되어왔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에 나가기에는 미성숙하고 위험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집, 즉 가족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집과 청소년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제껏 청소년 가출은 집과 가족, 학교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자 더 나아가 반사회적, 비규범적인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보호와 통제로 압축되는 기존의 청소년 담론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많은 여성학 및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등장했지만(김은실, 2001; 김현미, 2002; 변혜정, 민가영, 2007; 민가영, 2009).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에서 ‘가출’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간과된 개인 청소년의 문제이자 청소년에게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전히 ‘가출’을 보는 시각은 ‘비행’ 담론이 지배적이다.(남영옥, 2001; 김지혜, 안치미, 2006; 김경희 외, 2007). 청소년들의 ‘가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된 근본적인 인식론적 질문에서 많은 연구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현장조사는 이제까지 청소년 ‘가출’을 보는 인식론적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을 ‘문제적인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2.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청소년 가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제안

청소년 '가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전 청소년들의 가출이 갖는 무게와 다르게 '가능한 것'으로서 가출을 선택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가출에 대한 관점과 프레임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청소년, 소위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 뿐 아니라 '우수'하거나 '유복'한 환경의 청소년의 가출 역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전 시대에 문제적인 청소년들만 일탈적인 경험으로 가출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2000년대 이후 소위 모범적인 청소년들도 가출을 일삼고 있다는 보고가 등장한다.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가출을 '탈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더 이상 가출은 학교와 집에 품은 불만을 터트리는 치기어린 방법이 아니라 독립, 주체가 되 고자 하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다.

본 현장조사 면접참여자 '영호', '주연'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자신이 가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가출'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 가출자로 보고되며, 가출은 마치 청소년기의 입문 경험처럼 이해된다. 이런 경향 속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대단히 비행적인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 경험을 문제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가 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비로소, 일시적으로 가출한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사회'에서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집 밖에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론적 틀 안에서 여러 제도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제도적인 재접근 필요

본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을 돌보는 쉽터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증언했다. 이전 시대에 비해 청소년 가출 쉽터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쉽터는 여전히 가출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쉼터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수용소 컨셉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큼 밖에서 지낼지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수용하거나 혹은 영원히 가출 청소년 취급을 하는 쉼터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 현장조사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판매하는) 찜질방이나, 남자친구 집에 머물고자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오빠’들은 자신을 ‘문제적’ 존재로 낙인찍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 관계가 비로소 자유로운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소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겠다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이들을 ‘수용’하고 낙인찍는 것이다. 이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이동, 공간적 이동을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 본 현장조사의 결과이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십대 여성들이 여성성을 습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특히 가출한 십대 여성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사회는 끊임없이 여성들, 여성의 몸을 자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인권상황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이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젊은 여자’로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십대 여성들은 거리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제공하면 남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또한 현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 버린다. 이들은 거리에서 의존하며 살 수 있는 여성성을 익히기 시작하고, 이를 체화(embodiment)한다. 십대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된 가출에서 문제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출을 통해 십대 여성들은 무엇을 몸에 체화하는가. 이들의 몸에는 사회에서 ‘보호’를 외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완전한 자본주의, 성산업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을 성산업의 자원으로 만들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이 ‘안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일 것이다.

다. 청소년 가출을 이들의 욕망의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할 필요

인권상황 현장조사에서 만난 면접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놀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이들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나와서 노는 것’이 십대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나와서 놀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집과 학교는 사실상 이들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집과 학교는 재미없고, 폭력적이고, 이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역할들을 요구한다. “집안일이 너무 지겨워서 가출을 했다는” 면접 참여자 ‘지희’, ‘경하’, ‘수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소녀들한테 어머니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이는 비단 가사 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측면에서까지도 부인의 역할이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공부하는 암전한 아이가 아니라면 집에 있기 어려운, 밀어내는 힘이 집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3. 제언

가. ‘인정’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인정’이라고 대답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들을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들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정’의 형식인데, 이들은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 자기보다 크게 인정되길 원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거리가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성을 사는 남자, 아저씨들이 순간적으로 이 아이를 더 크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특정한 공간만 떠나면 아이를 어른으로 패스시켜주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에서, 엄마, 선생님, 쉼터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축소해서 자기를 평가한다고 이야기한다. 왜 자신을 축소하는 곳에 머물고 싶겠는가 반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쉼터 등에서는 매번 공동체 생활이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인정 없이는 소속이 되기 어렵다고 느낀다. 이러한 측면은 십대 역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들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나. 어른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청소년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청소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어른 중심의 사회, 시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청소년을 높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관은 재조정되어야 할 시기에 놓여있다. 어른 중심의 쉼터관, 가출에 대한 대책, 이런 제반 인식론에 대한 문제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라는 것이 거대한 이미지, 욕망의 소비 산업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언제나 단일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회귀되는 경향이 있다.

다. 대안적 실험을 제안

최근,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의사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귀가의사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전혀 원하지 않거나(43.0%)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23.2%)가 전체 응답자의 약 70%에 달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출 시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단 10.7%에 불과했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이는 지금의 '수용소' 컨셉, 혹은 '집-가족 연계' 체제를 고수하는 쉼터라는 공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보는 사고의 발상이 요청된다. 이는 동시에 청소년이나 가출 문제를 다르게 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안적인 공간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쉼터 또한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쉼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쉼터가 생겨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안적 청소년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년 가출을 다뤄보고 또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쉼터를 운영해볼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대안적 청소년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현재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쉼터 운영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를 함께 다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경희 외, 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극추구특성 및 가출 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16권 4호
- 김은실, 2001, “성산업 유입 경험을 통해 본 십대 여성의 성과 정체성”,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은실 외, 2013,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실태 현장조사팀, 국가인권위원회
- 김지혜, 안치미, 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17권 2호
- 남영옥, 2001,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8권 2호
- 민가영, 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변혜정, 민가영 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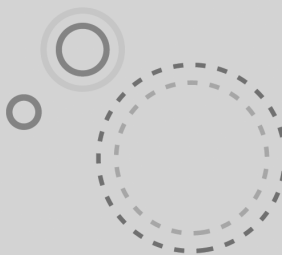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발제 2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조사 방법론 및 한계

정규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조사 방법론 및 한계

정규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1. 들어가며

청소년의 가출은 왜 여성주의의 문제일까? 처음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받았 던 때 떠올랐던 의문이다.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전교에 한 두명 있는 자퇴수준의 여학생들이 며칠 씩 학교를 나오지 않을 때면 ‘개 가출했대...’ 라는 소문이 돌았고,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무슨 오빠네 집에 갔다거나, 임신해서 낙태수술을 하는 거라는 얘기가 덧붙여졌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들의 상상 속에서도 가출 청소년과 섹슈얼리티는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었다.

민가영(2008)에 따르면, 신빈곤층 십대 여성은 연령 및 젠더 자원을 매개로 계급적 현실 속에서 젠더 역할의 의미 변화를 경험하며 이들을 통해 계층과 젠더가 교차하는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어린 여자’라는 것이 가지는 것과 이들을 욕망하는 익명의 남자들이 만나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성폭력적이고 성매매적인 것들이 위험과 쾌락, 돈과 교환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린)여자’라는 것이 자원이 된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젠더적 존재로 체현하게 되는, 이 익명의 남자와의 만남이 일상화되어버리는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상황이 된다. ‘어린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당연하게 사고하는 십대 여성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세계를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성찰해볼 수 있는 행위성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배움이나 열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익명의 남자들이 좋아해줄만한) 여자화된 존재로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실태조사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쉼터관계자, 십대 가출 전문가, 십대인권운동가에 대한 자문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평소 교사로 자원봉사하던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학생을 인터뷰 하였고, 부천 소재의 밥차인 ‘청개구리 식당’으로 연구자들이 아웃리치를 나가기도 하였다. 이때 부천역을 배회하는,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을 직접 섭외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는 스노우볼링 기법으로 인터뷰 참여자가 다른 친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주면접자와, 부면접자 두 명이 함께 진행하였고 한 회에 보통 2~3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가족, 학교, 자원망, 노동, 소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 ‘쉼터’에 초점을 맞춘 심층면접, 구술생애사, 초점집단면접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가출청소년들이 왜 쉼터를 기피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때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은 심층면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심층 면접, 구술생애사, 초점집단면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개인의 ‘체험’을 탐구하며, 문제 지향적이다. 구술사는 응답자의 전체 인생사를 다루며, 초점집단 면접은 한 주제에 대하여 그룹 내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는 반구조화 면접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체적 인터뷰 지침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질문되고 답변되어야 할 질문의 목록이 있는 방식이다. 이때 인터뷰어는 응답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도 던질 수 있었다.

-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 가출의 횟수와 지속 기간은 어떠한지?
- 가출기간 동안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 쉼터 경험이 있는지. 현재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가출 이후에 생긴 친구가 있는지?
- 가족사항은 어떤지, 부모님과 연락은 하는지?

위는 연구자가 가출청소년녀와의 인터뷰에서 던질 수 있었던 질문들 이지만, 이 질문들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좋은 심층 면접 방법은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대화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다.

구술생애사 방법도 사용되었다. 가출과 쉼터 기피상황이라는 주된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 결론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가족환경, 생애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개별적인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지희는 어떤 사람이야?’ ‘어릴 때 어떤 기억이 나?’와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나영(2012)에 따르면 구술사 인터뷰는 심층 면접과는 달리 “비개입적 듣기”에 방점을 찍으며 생애초기 구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고, 구술사 인터뷰는 구술자의 기억의 작동과 서술의 방식에 적응하는 듣기가 중요하다(윤택림, 2012). 고령자나 고학력자의 생애사를 인터뷰할 때, 특정 사건에 대한 재의미화와 재정의화가 완료되어 면접자료 해석이 어려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16~19세인 연구참여자들의 비교적 어린 나이와 저학력이라는 상황은 이들의 답변이 비교적 ‘투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의미화와 기억이라는 작업이 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도중 특정 사건이 자신이 몇살 때 일어났는지를 혼동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십대가 ‘학년’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생애를 연대기별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는 반면, 탈학교 탈가정 십대의 경우 특정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억할 수 있는 지표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반팔이었으니까 여름이었나 봐요’ 등의 계절적 지표를 사용하여 과거를 회상하기도 한다. 또한 왕따를 당한 기억,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일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울했어요.(지희)’라고 서술하는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도 보인다.

초점집단면접 방법 또한 사용되었다. 소현과 지희는 중학교 동창으로, 소현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희는 중학교 2학년에 자퇴했다. 이들의 면접은 연구자 3명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지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그 친구가 오히려 자신을 걸레라고 소문냄으로 인해 왕따를 당했던 사건, 그 때문에 친구인 소현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은둔하던 일을 설명하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자가 관찰하는 초점집단 면접이었다. 가출에 관한 인터뷰라는 상황은, 소현이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한 것을 지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구사이인 소현과의 대화는 연구자가 이끌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심층적이었다. 이들의 대화를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대화 이면의 상황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3. 질문들 - 오늘 밤 이들은 어디에서 잘까? 차이와 책임의 문제

연구자와 피조사자는 젠더,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인터뷰 현장에 오게 된다.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객관화 하는 경험주의자 연구자들은 종종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기 쉬우며, 다음과 같은 질문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 싱글, 백인, 중산층 연구자는 흑인, 노동계층 어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는가?
- 중산층, 백인 여성은 제 3세계 빈곤층 여성을 인터뷰할 수 있는가?
- 이성애자, 백인, 중산층 남성은 게이 노동계층 남성을 인터뷰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을 이 프로젝트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산층 연구자는 빈곤층 여성을 인터뷰할 수 있을까?
- 중년의 고학력 연구자는 저학력 십대 여성을 인터뷰할 수 있을까?
- 임금노동경험이 없는 연구자는 성매매하는 십대의 '일'의 의미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

초짜 연구자인 나는 처음에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조차 인식하지 못 했다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조면접자로서 인터뷰를 한 번 경험하자마자, 내가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계층편향적이며 학력편향적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까치발 서기'로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터뷰이와 응답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인터뷰 상황에서 차이가 낳는 효과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인종, 연령, 젠더, 성적 지향이 비슷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는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자'의 위치가 보다 유효하고 신뢰성있는 인터뷰를 보장하는가? 차이는 연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케이스 웨스턴(2004)은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했다. 레즈비언이 아니라면 연구 방향은 매우 달랐을 것이고, 게이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그녀는 동료 남성보다 더 쉽게 참여자를 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게이 클럽보다 레즈비언 클럽을 더 많이 조사했다고 회상한다. 같은 내부자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체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굴라족 여성을 연구한 보쿠-베츠는 흑인 여성 연구자인데, 인터뷰어가 '같은 소울을 통해 살고 있는 당신과 같은 흑인 연구자를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계층적 차이는 인터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미혼인 그녀의 상태는 그녀가 '남편감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를 연구한다.'라는 루머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서, 목사는 아니타 힐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녀 역시 교육받은 흑인 여성으로서 흑인의 집단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근히 적대하기도 했다.(보쿠-베츠, 2002)

이처럼 외부자의 입장이 오히려 연구에 이득을 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오히려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공유된 지식', 즉 당연히 알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한 인터뷰 안에서 내부자/외부자 상태는 유동적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연령, 계층적 상황이나 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인터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의식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연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위계를 없애기 위해 특히 고민한다. 정체성과 삶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은 인터뷰를 호혜적인 것으로 만들며 라포 형성을 돕는다. 권력과 권위는 민감한 문제로,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보다 거시적인 균형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어떤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통한 발견과 해석을 응답자와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조사자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도 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응답자의 주체적 이해와 관점 뿐이며, 쥬디스 스테이시(1991)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는 마치 권력관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 줄 위험이 있다. 응답자는 지나치게 세밀한 사적 이야기를 말하게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해석은 연구자의 몫이며 참여자가 이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제한적이다. (헤스-바이버, 2007) 연구자의 위치성은 이미 주어진 조건, 즉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참여자와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담배를 피우거나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를 친밀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리둥절해 하는 듯 보였고, 연구자-대상자라는 기존 인식과 다른 상황에서 대답의 '수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담배는 실패한 전략이었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경제적 격차는 윤리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부천역에서 노숙하는 참여자를 인터뷰하면서, 연구자는 이 친구가 오늘 밤 어디에서 자는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인터뷰장소였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것 밖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어설픈 동정이나 걱정의 말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비오는 부천역을 뒤로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경험은 두고두고 씩씩함으로 남아 있다.

4. 결론 - 성찰하는 연구자

여성주의적이며 성찰적인 연구의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연구 과정과 가지는 관계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하며 이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시작되어야 한다. 성찰성이란 스스로를 들여다 보며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가출 십대의 성매매' 라는 기존의 문제의식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았다. 성매매는 저소득층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물질적 보상이 있는 연애를 한 경험이 있던 스스로의 과거를 일종의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어서이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가정폭력/ 친족성폭력으로 거리에 나온 참여자를 인터뷰하며, 중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초졸이라는 학력으로는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었던 참여자를 인터뷰하며 산산조각났다. “나도 그들과 똑같아”라는 발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했으며, 중고등학교 때 그저 얽히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 아이가 앓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내심 경멸했던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드러냈던 징표들이 이제야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참여자에게 ‘나도 해봤어, 난 다 이해해.’라고 생각했던 내 태도가 전해진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들은 겉으로 쿨함을 가장한 채 속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지였다. 그러한 내 태도가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 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여성주의 연구자는 권력과 권위가 연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유한 관점을 면접 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편견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감별해야 한다. 여성주의자로서 주류 지식 형성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의 관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성 및 억압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정의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와 나의 권력관계는 어떠했을까? 참여자들이 연구자와의 위계성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잘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잘 유도했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은 연구 과정(인터뷰와 해석)에 어떻게 작용하였고,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나는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인터뷰 이후에 오히려 더 많았다. 이런 의구심들에 자신 있게 ‘연구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먼 훗날을 기약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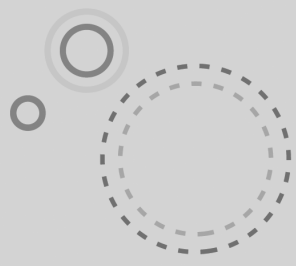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발제 3

여성가출청소년 정책의 한계: 쉼터에 대해

이정아
(선한목자교회 풀푸레나무 청소년 공동체 대표)



여성가출청소년 정책의 한계: 쉼터에 대해 - 가출 청소년 문제와 두 가지 제안 -

이정아 (선한목자교회 풀푸레나무 청소년 공동체 대표)

밤거리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시작한 지 3년째다. 집을 나와 혼자 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아이들, 그룹을 지어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만난다. 학교에 다니기도, 안 다니기도 한다. 주로 자기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아다니지, 도무지 기존의 제도화된 도움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잠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지역의 쉼터를 연결하기도 하고 때론 거리에 아이들을 둘 수 없어 교회로 데려가 재우기도 했다. 처음 2명이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십여 명으로 늘어났고 아이들은 계속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출 아이들을 데려왔다. 순식간에 동네에 불량스런 비행청소년들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민원과 항의가 빗발쳤다. 더 이상 아이들을 동네에서 살게 할 수 없어 작은 그룹만을 눈을 피해 재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빌려 재우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난 아이들의 삶과 욕구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쉼터를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하룻밤 잠자는 곳으로 활용한다. 왜 쉼터에 가지 않느냐고 하면 첫째, 부모에게 연락한다. 둘째, 친구와 동반입소가 안 된다. 셋째,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등 규칙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차라리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갈지언정 쉼터는 싫다고 한다. 추위와 배고픔을 잊고자 본드를 흡입하고, 돈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지내는 게 낫다고 한다. 바램은 돈을 벌어서 어디 원룸이라도 잡아 친구들과 살겠다고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거나 구한다고 해도 일상이 무너진 아이들이 성실한 사람이나 가능한 노동을 버틸 수도 없다. 당연히 보이는 대로 물건을 훔치거나 조건만남 등으로 쉽게 벌여 쉽게 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만난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고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있기에 아이들을 만나면 시간을 두고 상담을 거쳐 부모와 만남을 시도한다. 우선 아이들이 실종신고나 가출신고가 되어 있는지 경찰서에 확인하고 아이들이 우리와 있음을 알린다. 보호자가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여러 경우,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끌고 간다.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길 싫어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가 모두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이들의 공통된 호소는 “거리가 집보다 낫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가 175명의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자. 가출한 10대 소녀들에게 부모의 상황을 묻은 결과, 20.9%는 부모가 서로 불화를 겪었고 17.9%는 부모의 심각한 간섭에 시달렸다. 15.2%는 부모로부터 학대 수준의 폭력을 겪었고, 11.2%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이들 부모의 7%는 알코올 중독, 4%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가출 소녀 가운데 일부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도 경험했다. 처음 가출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 175명 가운데 8.5%인 14명이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라고 답했다.

1. 어린 아이 적부터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학대와 방임 등의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발견되는 과정과 그 후의 사례개입 과정은 비인권적이다. 신고 된 아동의 경우, 일정 기간의 상담이나 치료를 거치고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당수의 아동들은 일시적인 분리와 짧은 보호기간 뒤 다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는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진다.

시설 위주로 아동을 분리하려는 제도적 원칙은 아동들이 가정 속에서 누릴 인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입양이나 위탁가정은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시설 위주의 아동분리 원칙은 선량하고 성숙한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청소년의 문제는 아무리 많은 시설을 만들어도 해결할 수 없다.

2. 모든 인간은 가정이 있어야 하고 가정과 같은 유대를 갖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

거리에서 만난 상당수의 아이들은 결국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 인간이 15년에서 20년의 시간 동안 형성된 인성이나 습성이 법적 처벌과 몇 차례의 상담과 교육으로 바뀔 수 있을까? 독일은 청소년의 경우 소년원에 한 달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왜일까? 제도적 조치의 하나인 처벌로는 청소년의 비행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인격과 정서 장애, 때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현재 195개 지역(시·도 17, 기초 173)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246개소(시·도17, 기초229)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도 현재 92개소에서 전국 170개로 확대하고 일시·단기·중장기 등 유형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이 파괴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그 역할을 상담이나 시설 같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기관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시설의 숫자를 늘리고 기관들을 만들면 이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과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 앞에 우리가 제시하는 대답은 왜 쉼터가 있는데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다. 쉼터에 가면 보호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설이 가정인가? 가정은 그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엄연히 시설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

서구 사회는 가정의 ‘무한책임’과 ‘돌봄’의 기능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원가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가정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누구나 가족이 있기 위해서는, 가족이란 무한책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즉 성숙한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친족 중심으로 가정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올바른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 각자에게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 하나는 사법적인 처벌과 사회복지적 보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적 관심과 사랑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제도적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이 올바른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청소년의 인권이 올바르게 확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비제도적인 가정과 공동체의 영역을 제도적 영역인 시설(특히, 쉼터와 상담)이 감당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3. 두 가지 제안

청소년 인권에는 비제도적 영역, 즉 시민들의 공동체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먼저 시민들이 청소년 문제를 보고, 배우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첫걸음은, 또한 이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한데, 청소년 시설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의 확대는 '개방'의 과정이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이러한 시도는 그곳에 참여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에 가정의 역할을 하는 시민들과 공동체가 더 많아져야 하며, 가정의 역할을 제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 가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정을 혈연중심의 의미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혈연중심의 가정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속한 청소년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회복지가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무한책임을 바탕으로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서비스일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 위탁가정의 대부분은 친족위탁이다. 친족 이외의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위

탁 된 경우는 아주 적다. 부친의 경우는 아예 없다.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 영역들이 시민사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장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량하고 성숙한 시민들, 공동체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격려하고 포상하고 지원해야 한다.

나. 시설은 철저히 시설다워야 한다.

시설은 가정도 가족의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족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청소년의 욕구와 맞지 않는다. 시설은 유한한 기능을 하는 곳이므로 가정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시설은 시설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은 제도다.’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할 때,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정책과 재정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를 늘려가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지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 사회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예) 청소년 드림 충전소 플러그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에서 이제는 할 수 없어진 청소년 드림 충전소 플러그인-물푸레나무의 대안 공간-은 아주 단순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잠자리와 먹거리가 있었다. 유일한 규칙은 귀가 가능한 시간(11시 귀가, 이후 아침 8시까지 귀가 불가)이었다. 플러그인을 이용하려면 청소, 상담, 치료, 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코인(COIN)을 얻어야 했다. 청소는 설거지와 화장실, 흡연실, 방 청소 등 자신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에 관한 것들이었다. 때로는 모은 코인을 노래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식(피자, 치킨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당연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었기에,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에 불평불만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파악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이기에 위와 같은 예를 그

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유한책임자인 사회복지가 운영하는 시설과 우리와 같이 무한책임자인 지역공동체(예를 들면,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개념과 지향점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운영 시설은 사회적 기능(물질적 결여의 보충)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고, 지역공동체 운영 시설은 가정적 기능(정서적 결여의 보완)에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많아진다면, 서로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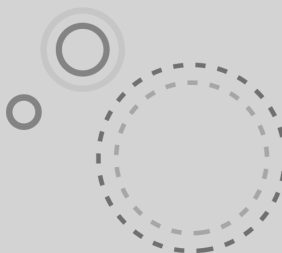
지정토론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문

이은심 (중앙대 인권센터 전문연구원)

이현주 (이화여대 영문학부)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십터의 규율과 자율 및 사회적 안전망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하며

이은심 (중앙대 인권센터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대리인)의 ‘나는 처녀가 아니다-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발칙한 페이스 선언’ 운동이 화제이다. 성인과의 연애 경험이나 성폭력과 다름없는 첫 경험, 콘돔 및 피임과 관련된 걱정과 불안함, 성소수자라는 당당한 커밍아웃과 그간의 고군분투, 사도마조히즘(SM) 취향까지 다양한 선언들이 등장했다. 어른들은 십대에게 성(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성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이¹⁾, 십대들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심지어 다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어른들이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십대들의 선언에 매우 당황하는 것과는 달리(한겨레21, 2013-05-19),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비롯하여 여성학자(김은실 2001; 민가영, 2008; 변혜정, 2010)들은 십대를 성적 주체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한국사회는 십대, 특히 십대 여성의 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교, 집 등 제도적 영역 안에서는 십대를 보호받아야 할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조금만 제도적 영역을 비껴나가면 십대의 성을 욕망하고 소비하려고 한다. ‘영계’를 욕망하는 성인남성들의 수요에 맞물려서, 성산업은 금전적인 유인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십대 여성을 유인하며 그들의 성을 소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산업을 제외

1) 여전히 제도권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의 현장은 매우 보수적이다. ‘건강한 성, 아름다운 성’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기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콘돔을 씌우게 하는 피임교육의 경우에도 교장 및 학교 관계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야동을 보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고민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십대들은 이미 야동 정도는 친구들과 카톡으로 돌려본 경우가 많다. 십대는 어른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훌쩍 넘어서 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고민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다른 노동시장에서는 십대라는 이유로 공식적 취업이 거절되거나, 신분을 속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지만, 성산업에서만 십대 여성은 어른으로 패스될 뿐만 아니라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십대 여성이 성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인과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왜 가출한 십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가를 질문하기보다는, 왜 한국사회가 이러한 이중적 성규범 및 성산업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보다 문제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일 수 있다.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이하 현장조사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왜 십대 여성이 가출을 보다 손쉬운 선택지로 간주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면서, 성산업을 통해 사회를 경험하게 된 십대 여성들이 ‘어린 여자’라는 점을 어떻게 자원화하며 여성성을 체화하는 계기로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현장조사 보고서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동시에 이 보고서가 어떤 논의지점을 시사하는가를 서술하겠다.

2.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의 의의:

청소년 가출담론의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재구축 제안

기존 청소년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서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일부청소년의 비행이나 이탈, 반사회적인 행동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서 한정하기 때문에, 청소년 가출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들다(김은실, 2013). 또한 기존 청소년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출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를 단순히 ‘위기가정’으로 진단하면서 ‘정상가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저소득층, 한부모, 이혼가정 등으로 설명되는 ‘위기가정’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중산층 기준의 ‘이상적 가정’의 규범성을 모방하라는 캠페인만으로는 ‘정상화’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단지 ‘정상가정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구성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가정’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장조사 보고서는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 비행담론으로 보는 기존 담론의 한계를 분석하며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재구축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출을 문제적인 청소년의 일탈적인 경험으로만 서술하기 때문에, 소위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수’하거나 ‘유복’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김은실, 2013).

그러나 현장조사 면접참여자 ‘영호’, ‘주연’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위 ‘유복’한 가정의 청소년들 또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한 방법으로서 가출을 선택하고 있다(김은실, 2013). 이는 이른 중심의 사회에서 십대가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어떤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가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십대들의 ‘놀고 싶다’라는 욕망은 집과 학교라는 훈육의 공간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십대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놀고 싶다’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놀이 위해 소비해야 하는 돈’을 필요로 하며, ‘돈’을 얻기 위해, 혹은 ‘자유’를 얻기 위해 가출을 감행한다.

가출 이후의 삶은 십대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간에 매우 가혹한 생존투쟁의 연속이며, 십대들은 ‘가출팍(가출패밀리)’를 구성하기도 하고, 쉼터에서 잠깐씩 몸을 의탁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쉴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험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십대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기 않기 위해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꾸는 등 자신만의 안전지침을 구축한다(현장조사 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는 개별적 안전지침을 구축하는 십대 여성의 행위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가출한 십대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어떠한가 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한다. 학교나 집의 폭력적인 훈육을 벗어나기 위해 가출한 십대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또다시 ‘보호’의 이름으로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현장조사 보고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안적 안전망을 제안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에 대한 논의지점

가. 십대 내부의 차이와 계층, 독립의 의미

기존 청소년 연구는 대부분 십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십대, 삼십대 등 다른 세대에 비추어보더라도 십대에 대해서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는 삶의 선택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이십대, 삼십대와 달리, 십대가 제도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십대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제도권 내 교육과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남 8학군에 다니는 십대와, 중소도시의 변두리 학교에 다니는 십대의 일상생활은 매우 다르게 영위된다.

현장조사 보고서는 영호와 주연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 청소년 가출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십대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십대 또한 가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호는 논술학원에서 진보성향의 선생님을 만나서 사회운동을 입문하게 된 이후에, 집회현장에서 밤을 새거나 진보신당 당원인 대학생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통해 가출하고 있다. 영호는 자신의 가출에 대해 단지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철없는 행동으로 의미화되는 가출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서 ‘출가’, 즉 독립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영호의 독립은 성인인 대학생 남자친구가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데,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십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당원이자 대학생인 남자친구의 존재는 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영호가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매매와 연애의 경계를 오가는 다른 십대 여성들이 만난 다른 성인 남성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영호의 독립은 청소년 가출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인데, 현장조사 보고서에서는 가능성만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영호가 스스로의 독립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저소득층 가출십대의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은 가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독립’으로 강하게 의미부여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영호를 다른 십대와 가르는 기준은 영호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적 기반으로 인해 논술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사회운동의 언어이자 청소년인권운동의 언어를 습득하였는데, 이것이 가출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이러한 차이가 영호의 가출 이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변혜정·민가영(2008)은 청소년의 가출과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중산층 십대 여성의 경우 가출해서도 여성에 대한 규범과 미래의 가능성 때

문에 성산업에 진입하지 않거나 가출을 종결한다고 말한다. 중산층이지만 사회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규범이나 성역할에 비판적인 영호는 성산업에의 진입과 성경험에 대해서 다르게 의미화할 수 있는데,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지점들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었다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으리라 본다.

나. 쉼터-규율-자율 사이의 고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문화운동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 쉼터였던 열림터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자쉼터였기 때문에 입소대상이 십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열림터에 입소하게 되는 생활인은 십대가 대부분이었다. 열림터에 신입 활동가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열림터 내부의 여러 가지 생활규칙에 관한 것이었다. 열림터는 다른 쉼터에 비해서는 생활규칙이 자유로운 편이고, 정기적으로 생활인 내부 회의를 통해서 생활규칙을 함께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열림터도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밤 8시 이전 귀가, 외박 금지, 음주 금지, 컴퓨터 하루 1시간 사용 등과 같은 생활규칙들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나 설거지, 외출 금지 같은 벌칙이 존재한다. 신입활동가가 처음으로 생활인 면담을 하면 늘 호소하는 문제는 생활규칙에 대한 불만이었고, 신입입활동가들은 종종 열림터의 규율이 엄격하니 이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곤 했다. 실제로 어떤 생활규칙들은 신입활동가의 건의로 인해 철폐되거나 다소 느슨하게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입활동가들은 외박이나 귀가시간 등의 생활규칙의 문제로 생활인과 갈등을 겪게 되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십대 생활인은 아직 서툰 신입활동가가 숙직일 때 집단적으로 외박이나 가출을 몰래 감행하기도 하고, 눈을 피해서 열림터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사가지고 오거나, 가끔씩은 내부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열림터 활동가들은 생활규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십대 생활인 내부에서 ‘나는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불만이 발생하거나, 연달아서 다른 생활인도 외박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이럴 경우 느슨한 생활규칙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규칙이 다시 엄격하게 적

용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단지 열람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침대가 입소해있는 쉼터라면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쉼터에서의 규율과 자율의 경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쉼터가 또다시 보호의 논리로 '수용소'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조사 보고서의 비판지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 쉼터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 많다.

특히 며칠씩 침대들이 쉬었다 가는 일시쉼터가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장기쉼터의 경우 사실상 침대들을 양육하는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살아온 배경과 역사가 다른 여러 명의 침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일 때,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규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이 규칙의 내용이 적절한가?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의 몫일까? 이 규칙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철폐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항상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 근대적 규범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생산과 갈등

제도권 내의 교육과정은 침대를 사회가 필요한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는 침대가 가진 현재의 삶과 즐거움을 모두 유예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며 억압적이다. 가출한 침대는 제도적 훈육 과정을 탈락하거나 혹은 거부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들을 노동력으로 재규범화하는 과정은 이전보다 더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많은 쉼터에서 입소한 생활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 지도의 문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문제이지만 가장 해결책이 쉽게 제시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어학연수, 공인 영어점수, 각종 인턴 경험 등의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설 때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력인 침대, 혹은 이침대에게 열리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가출해서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침대들에게 긴 노동시간과 매우 강한 노동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은 지속적으로 노동을 참고 견딜만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쉼터에서 생활하는 침대나 갓 독립한 이침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끊임없

이 진입과 탈락, 재진입을 반복하며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한다.

특히 성산업을 경험한 십대 여성의 경우, ‘어린 여자’라는 자원이 주는 이점이 성산업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노동시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 수도 있다. 가출한 십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 더 나아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내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보다 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은 십대라는 시간성과 맞물려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린 여자’라는 자원의 효력은 약해질 뿐 아니라, ‘합리성’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된다.

쉽터에서 생활하는 십대가 사회적인 노동력으로 훈련되는 과정은 앞서 쉽터에서의 생활규칙과 규율에 대한 딜레마와 맞닿아있다. 쉽터에서 제공하는 학교나 직업훈련은 과거 십대가 경험한 집·학교와 같은 강제성이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인 참여와 규칙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쉽터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원 또한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쉽터에서 십대에게 취업을 고민하고 이후 진로를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갈등적인 문제이며, 이는 단지 쉽터에서 생활하는 십대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 십대의 문제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4. 나오며

최근 십대의 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십대의 가출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팸에 대한 시선 또한 모순적인데 어른들은 가출팸에 대해서 범죄의 온상이라고 비난하지만(연합뉴스, 2013-02-15), 정작 가출한 십대 여성들은 가출팸에서 성인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윤선미·이나영, 2012). 사회로 혼자 내던져져 당장 하루 하루 먹을 것, 잘 곳이 걱정해야 하는 가출십대들에게 동료가 될 수 있는 가출팸은 당장 원가족보다 훨씬 더 믿을만한 ‘가족(family)’이 된다.

그러나 가출팸이 주는 지지와 위안은 매우 한계적인데, 주유소나 편의점 알바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출팸의 주 수입원은 성인과의 조건만남, 즉 성매매에 있기

때문이다. 가출팸의 십대 남성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성구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면, 십대 여성들이 성판매에 나서는 현실 속에서 가출팸은 현실의 젠더위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착취적이며 폭력적인 구조로 움직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팸에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성폭력 이거나 강압적 성매매이기도 하며, 십대 여성 사이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권력이 많은 십대 여성이 나이 어린 십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수익금을 가로채기도 한다(연합뉴스, 2013-05-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팸이 가출한 십대들에게 가장 믿을만한 동료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도권의 틀을 뛰쳐나온 십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실패한 이유는 제도권 내의 훈육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거부한 십대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훈육모형을 가진 쉼터나 직업훈련소로 입소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제도권의 틀을 뛰쳐나온 십대들은 가출팸과 같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버틸지언정 다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제도권 내의 폭력을 제도권 밖의 폭력으로 대체할 뿐이며, 십대가 어떤 폭력을 좀 더 견딜 수 있고 견딜 수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학교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과정이 가능해야 하며, 십대들의 ‘놀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하면서도 십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또한 그 기능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해야 하겠지만, 장기 쉼터의 경우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 보육시설로서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은실(2001), “성산업 유입 경험을 통해 본 십대 여성의 성과 정체성”,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_____ (2013),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총평 및 제언”(2013.06.05 발표)

민가영(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젠더, 계급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변혜정·민가영(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 계급 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변혜정(2010), “막연한 섹스, 변화하는 10대, 갈광질광하는 어른들”,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동녘

윤선미·이나영(2012), “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 『한국여성학』 제28권 4호.

연합뉴스, 2013-02-15, “가출팸(가출패밀리)’, 범죄 확대·재생산의 온상”

연합뉴스, 2013-05-23, “3개월간 성노예였다” 10대 ‘가출팸’서 강제 성매매”

한겨레21, 2013-05-19, “A의 애인은 남성 비청소년, 나의 X는 여성청소년”

여성가출청소년

- 나와 상관없는 그들의 문제, 그리고 'Plan B'를 권하는 사회 -

이현주 (이화여대 영문학부)

젊은 세대와 내가 가르치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여성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다. 나와 상관없는 개네들의 문제 그리고 좀 흥미롭고 궁금해서 수다거리로 안성맞춤인 주제정도이다. 사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노는 것을 좋아해 사회봉사, 교내봉사, 그리고 정학의 위기까지 겪었던 흔히 말하는 '날라리'였다. 그리고 한 계기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만 모인 특목고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왔다. 중학교 때 성적으로 평가한다면 최하위의 무리, 모범성으로 평가한다면 또 바닥을 치는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했다. 이후 특목고에 진학한 후로는 엘리트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친구들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반대의 집단을 경험한 나로서 여성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여기에 써내려갈 논의는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만 주관적으로 다룰 것이다. 사실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거니와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기에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다'하는 식의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반대의 집단을 모두 경험한 나로서 느끼고 깨달은 여성가출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조금 풀어 보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보고 싶다.

흔히 일컫는 문제아 집단과 모범생집단(혹은 일반학생집단)사이에는 큰 벽이 있다. 서로의 집단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편견과 오해가 정말 많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들은 모두 어른들이 모두 차단해 버리기에 존재하기 힘들다. 일반학생들은 일명 사교친 학생들을 낙오자라 생각한다. 내신이 더 중요하고, 수능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스펙이 중요한 이 시기에 학생기록부에 '빨간 줄'을 남길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네들의 문제'로만 보인다. 그들이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면 자신의 내신 성적을 올려줄 '밀거름'정도 인 것이다. 그리고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도 혀를 내두르며 비난하기에 어른들을

따라서 학생들도 같이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편이 되면 모범생범주에서 벗어난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먼저 이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집과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는 문제아로 낙인찍는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공부해서 성공하려는 올바른 길과는 멀어 보이는 그들을 보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혹은, 한심하게 인생을 사는 낙오자, 루저(loser)라고 생각하며 같은 또래를 본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법적으로 또래를 분리시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른과 아이들의 인식 안에서 가출은 더 심각한 일탈이고 비난을 불러온다. 특히 여학생이 가출한 경우는 남학생이 가출한 것보다 더 무성한 소문이 학교에 돌면서 가출을 했던 여학생이 학교에 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침대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무서운 건 또래 집단의 시선과 반응이라 생각한다. 어른들한테야 심하게 혼이 나가거나 체벌을 받으면 끝이지만 교실 복도를 걸어 갈 때 혹은 교실 안에서 또래아이들이 수군거리거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눈빛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눈빛을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더 강한 척을 하고 학교나 사회제도에 빚나가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아직 어리기에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재는 또 왜 저래?”라고 생각하는 일반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문제아집단과의 오해는 더 깊어지게 된다.

2008년~2010년도는 내가 침대였을 시기인데 그 때에도 패밀리의 약자인 ‘팸’이란 것이 존재했고 나또한 실제로 팸을 만들어 무리를 만들어 놀았다. 그러나 현재 팸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다. 예전의 팸은 그냥 같은 무리로 노는 친구들, 우리 그룹의 개념정도였지만 지금의 개념은 정말 같이 자고 먹는 가족원의 개념으로 변화 한 것만 보아도 가출의 형태가 많이 커지고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당시만 해도 가출해서 머무르는 단골 장소는 친구네 집이나 남자친구 집 정도였다. 그러나 며칠씩 지내다 보면 친구네 가족 눈치도 보이고 불편해 결국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출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찜질방에서 며칠 더 머무르는 친구들로 나뉘었다. 그러나 후자의 친구들도 당시 시급 3000원대 정도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었기에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음을 절실히 느낀다.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시급을 받아서 가출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여기에 키스방, 키스카페, 대딸방과 같은 유사성매매 업소는 우후죽순 생겼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자신의 어린 몸을 판매하기 쉬운 시장이 형성되어있다. 즉, 예전처럼 여성 가출청소년들이 친구 집, 그리고 찜질방에서 가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Plan B'가 존재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어린 여성성이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선 성산업에 뛰어 들 수 있는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는 그들에게 Plan B(제2 안, 첫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가 Plan B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여성청소년들이 잠정적으로 가출을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면 Plan B가 존재하는 사회는 너무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여성가출청소년이 정말 독립주체가 되고자 함에 가출을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플랜비가 존재하지 않고 진정히 그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사회에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몇 주 전,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비열한 거리'라는 제목으로 십대 청소년 가출 청소년을 다루었다. 출연한 십대들은 가출청소년의 현장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가정문제, 폭력 등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나온 아이 들었다. 이들을 인터넷으로 팸의 구성원을 찾아 말 그대로 같이 생활만하기도 하고, 혹은 팸을 잘못 만나 성매매 산업에 따라 뛰어들기도 했다. 여기서 내 관심을 이끈 점은 부산모텔강도 사건이었다. 부산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모텔강도사건은 그 수범과 세력이 커져 부산을 비롯해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어른을 찾으면 어린 여학생이 장소에 나가 모텔에까지 같이 이동 뒤 대상이 샤워를 하면 어느 모텔의 몇 호인지를 같은 팸이나 우리의 오빠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4~5명의 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십대들이 나타나 모텔 주인을 위협하며 여동생이 잡혀갔다고 해당 방문을 열게 만든 뒤 남자를 심하게 폭행 후 현금을 빼앗고 이후에도 협박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낸다. 방송에 출연하는 여학생들은 자기 들은 직접 성관계를 안 맺어서 몸이 상하지 않으니 좋고 한 건당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니 하루에 많이 할 땐 세 네 번을 오빠들과 일을 저지른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그들은 조사서를 쓰고 나가서도 또 조건만남을 하거나 범죄를 다시 할 거라 말한다. 자신들이 거리에 나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고, 자신들의 행위보다 자신들의 성을 돈을 주고 사려는 어른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러한 길(플랜-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문제라 말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인 내가 느끼는 가출청소년들의 성장규모는 엄청나다. 몇 년 지나지 않음에도 그들이 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미루어 대안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바로 사회적인 기관과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컴퓨터에서 돌보기보다 또래 집단과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로 PEER-MENTORING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집이라면, 그들이 학교나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은 또래집단이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학교에 적응하고 불량학생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적응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또래 집단, 즉 친구들의 이해와 수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컴퓨터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곳이다. 그곳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다시 거리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두 섞여있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모범생' 혹은 '일반학생'은 없다. 자신들과 같은 수단으로 거리에서 살며 상처만 받은 아이들만 모여 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비슷한 아이들 밖에 보지 못해 절망감과 사회에 대한 반감이 더 생길 수 있는 공간이다. 모범생이 무조건 올바른 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세상 또한 훨씬 좁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관계나 웹의 관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SNS나 온갖 통신매체가 발달해 무슨 중학교의 누구인지, 어느 지역의 무엇을 하던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것에 어른들보다 더 민감하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또래 집단의 일반학생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다시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래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나가고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상담은 컴퓨터의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또래와의 대화로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세계라 생각했던 '일반학생 집단' 과 한심하게 거리를 배회한다고 생각한 '문제아 집단'과의 진정한 교류가 만약 이

루어지게 된다면 학생 때부터 생긴 이분법적인 인식을 깨트릴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들이 가진 편견과 오해가 풀리면 학교는 다시 여성가출청소년들을 감싸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여성가출청소년 또한 다시 뺨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위로를 받음에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거리에 선 십대여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움이 절박했던, 배워야 산다고 믿었던 기성세대에게 학생이라는 말은 한때 선택받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우리의 속설 속에 공부의 때는 바로 청소년기이고, 그 때에 학생으로 불리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말과 등치되어 사용되어온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학생인, 아니 학생이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가치는 이들이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인 청소년 그 자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에게 가족은 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과 진정한 사랑과 배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와 안녕을 제공하는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배워야 하는가? 학교는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배움과 기회를 허락하는가? 이 시대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족과 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집단 허위의식의 실체와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1. 청소년 쉼터의 한계와 가능성

청소년 쉼터는 거리에 나온 십대여성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등 보호와 양육을 통해 십대여성의 생존권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쉼터가 거리에 나온 십대여성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쉼터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묻게 한다.

쉼터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머리 말리는 것까지 간섭하는

빠센' 운영방식으로 견디기 힘들었음을 보고한다. 그래서 '교회 가는 척하고 짐을 다 놔두고' 컴퓨터를 나오기도 한다. 휴대폰 사용금지, 흡연금지,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외박 금지, 동성애 성향 발각 시 퇴소 조치 등 컴퓨터에서 십대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은 컴퓨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주문이라는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여기에는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미성숙으로 인한 일탈 또는 부적응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자율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유보되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거리로 나온 십대여성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는 '스위트 홈'이라는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와 같이, 십대여성의 가출 뒤에는 집보다는 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족과 사회가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청소년 컴퓨터의 사회적 가정으로서의 가능성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잘 데 없고 배고픈 거리생활에 지친 십대여성들에게 컴퓨터에서의 생활은 공부도 운동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집으로서의 잠재력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으며, 기본적인 물질적·정서적 지원도, 지지도 제공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십대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딸로서 '어린 엄마'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어머니의 부재를 메꿔주는 '성적 대상' 또는 '구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컴퓨터에서는 의식주가 제공되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간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컴퓨터생활이 좋았다는 한 십대여성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가족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제공해주지 못한 안전에의 욕구가 컴퓨터를 통해 실현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감의 교류와 가족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보다 안전해보이는 거리로 나온 십대 여성들에게 컴퓨터가 이들의 삶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컴퓨터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운영구조의 전면적 재검토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2. 학교의 변화,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좋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공부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가출과 학업중단 등 비행으로 치부되어 온 문제행동을 하는 십대 여성들에게 학교는 가족만큼이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착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딱센 규정과 선생님의 막말과 체벌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학교의 속성상 한번 학교의 눈 밖에 나게 되면 학교생활은 더욱 고달파진다. 이처럼 학교가 ‘문제 학생’의 문제와 학습권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문제 학생’의 배제를 통해 ‘비문제 학생’의 문제 학생화 방지에만 관심을 갖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의 이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정서적 안녕이나 인성교육은 가족과 가정교육의 몫이라는 과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오랜 이분적 역할 분담론을 되짚어보게 한다.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심리·정서적 지지와 안녕은 가족의 몫이고 가정교육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이분법적 역할 분담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매일 아침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은 모두 똑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진공 속의 청소년’이 아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알콜중독 아버지의 아침밥을 챙겨놓고 등교해야 했던 십대여성도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재우려고 아침밥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학교까지 운전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 지금의 교실이다. 그럼에도 학업에서의 성취는 오롯이 학생 개인의 능력으로 돌려질 뿐,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적 배경 등은 관심도, 이해도 배려의 대상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배제되고 소외되는가?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학업중단의 위기경험을 한 십대여성들은 도덕적,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가족이라는 ‘정상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보고한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던 중학교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 가출한 여중생을 아버지를 만나게 해, 결국 학업중단과 장기 가출상태에 놓이게 된 십대여성의 사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자금의 우리 사회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이해가 얼마나 일천한지를 보여준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머리 속에 그려마지 않았던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은 혜택받은 일부 청소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파편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학교가 지금 이 순간 교실에 앉아 있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눈 감은 채,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인정(?)되어 온 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 학교의 구조적 변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일차적 착지점은 학교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정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청소년이, 아니면 그 부모가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을 찾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부딪힌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란 그림의 떡이거나 너무 늦은 지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가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가족지지체계와 이들이 서 있는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 사정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 인 쇄 | 2013년 6월

| 발 행 | 2013년 6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21 | F A X | (02) 2125-992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58-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